

상호신뢰 단합 최우선 포장의 기술적 발전 도모



이 청 원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지난 3월 15일,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동보성에서 열린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제 13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국가공인 기술자격인 포장기술사 자격 인증자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8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포장개발 및 연구, 조사, 포장컨설팅, 기타 포장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이청원 회장은 “어떤 모임의 단체 간에 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되지요. 특히 포장산업분야에서 국가 최고의 전문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라며 조심스레 소감을 밝힌 그로부터 앞으로 이끌어갈 (사)한국포장기술사회의 진로를 들어본다.

이청원 신임회장은 “포장 기술사는 모든 포장분야를 망라한 최고의 기술전문가,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며 “포장기술사회는 이에 발맞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포장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일들은 “내부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외부로는 글로벌화 되는 시대상황에 맞게 개개인 마다 더 나은 선진기술을 배양하고, 국가경쟁력을 구축하는 지식기반산업에 걸맞도록 체계

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라며 포장 최고 전문가 단체로써 우리나라 포장기술의 발전과 포장문화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포장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공학(Engineering)을 바탕으로 하여 고도의 전문기술지식과 응용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전문가이며,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 회장은 최근 포장산업이 제조업 기반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기술사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이때에 포장기술사 단체인 (사)한국포장기술사회가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국내 포장 산업이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포장 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의 엔지니어, 포장기술사들에게 국내 포장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협력하여 한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를 가지면 포장기술사들의 단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견고해 지리라 믿는다며, 이러한 믿음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째는 포장산업에 있어 최고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째, 늘 자신을 위한 기술향상과 국가포장산업기술발전을 위한 기술정책의 입안과 계획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모든 기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서로 최고의 기술자로서 협동과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들 간에 기술을 공유하고 각자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유기적 모임을 시스템화한다. 이 회장은 이러한 세 가지 중점 사항을 지켜 나가면 내부적으로도 단결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변 다른 단체들과도 각 단체별로 규정된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는 업무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서 신뢰가 구축되고, 더욱 공고한 단체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덧붙여, “이 신뢰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시너지가 분출되어 포장 산업이 가일층 발전되리라 믿으며 관련단체간의 대화를 중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신뢰와 인정, 상호협력을 꼽았다.

“한국포장기술사회의 7대회장으로서 그간 불모지였던 포장 분야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논리적이며 체계화를 통하여 기술사회의 괄목할 만한 위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초대 김영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2대 이명용 회장님, 3대 김청 회장님, 4대 공재홍 회장님, 5대 이명훈 회장님, 6대 김기태 회장님의 공적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개인적으로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 구축해온 이 분야에 회장을 맡아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며 겸손함과 신뢰, 인정이 담긴 마음으로 회원들을 대하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의 7대 이청원 회장. 앞으로의 임기 동안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포장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사)한국포장기술사회가 앞장 서겠다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 ☺

(송설희)